

해남군, 한우 수급 안정 대책 적극 추진

역대 최대 사육두수 전망 가격하락 대비 사육규모 조절

송아지 및 번식용 암소 추가입식 자제·번식용 암소 감축 등

해남군은 한우 사육 규모 확대에 따른 도축 확대에 도매가격이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두수는 2022년 12월 356만 마리, 2023년 12월 358만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체수 확대에 따라 도축 마릿수도 2023년에는 평년대비 22% 증가한 94만 마리, 2024년에는 102만 마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남군에서는 2022년 상반기 5만3,390마리로 지난해 동기기간에 비해 4,000여 마리가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진도축협 가족시장 경매내역에 따르면 2022년 10월 입선우는 평균 582만원, 암송아지는 평균 233만원, 수송아지는 평균 423만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각각 58만원, 123만원, 45만원 하락하여 수급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배합사료 등 사료가격은 상승함에 따라 농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송아지

및 번식용 암소 추가입식 자제와 번식용 암소 감축 등 자율적 사육규모 조절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군비 9억7,250만 원을 투입해 사료운송비와 사료포장재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영개선 및 한우 개량을 위해 군비 총 6억2,800만 원을 투입해 가족시장 출하운송비, 가족인공수정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우 사육농가의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추가입식 자제와 저능력 번식용 암소의 선제적 출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화재·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기관 간담회 개최

진도경찰·진도소방·목포해경 진도파출소 관계자 20여명 참석



진도군이 겨울철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진도군,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 기관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겨울철 화재, 교통사고, 선박·농기계 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협조 사항도 함께 공유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안전 유관기관 간담회는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열렸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시켜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22일 '2022 송년 클래식음악회' 공연

장흥군은 22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겨울밤에 흐르는 가곡의 향기 '2022 송년 클래식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위로와 치유의 의미를 담아 펼쳐진다.

바리톤 정찬경, 베이스 바리톤 이하석, 테너 국경완, 소프라노 서하은, 서지은, 신은정 피아노 이유정 등 국내 정상급 음악인들이 출연해 다채롭고 품격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단체관람 가능) 입장권은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예매와 인터넷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송년음악회로 장흥군민이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서비스 향유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마늘·양파 저장·가공 선진지 견학

마늘·양파 19억 원 규모 건조·저장시설 200평 설치...농가 소득 증대 도모

지난 6일 강진군의 마늘 주산지인 신전면과 작천면 마늘 재배농가, 도암농협, 한들농협 관계자 등 20명이 경상남도 창원군 이방농협과 창녕농협을 견학했다.

창녕군은 전국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심는 주산지로 마늘 약 3,000ha, 양파 약 600ha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창녕농협은 전국적으로 2,500톤의 마늘을 수매하고 있다.

견학 참여자들은 마늘 재배 노하우와 가공, 유통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늘 저장 및 가공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이경 창녕농협조합장은 "창녕농협에

서는 건조시설을 통해 수매한 마늘을 건조하고, 선별라인에서 간마늘로 가공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으로 납품한다"며, "우리 마늘이 살기 위해서는 수입산 마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 참여자들은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가공과 유통시설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번 견학을 통해 가공시설을 직접 보고 마늘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공무원 행사 취소 '가뭄 대책비 지원'

완도군은 공직자 한마음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뭄 대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공무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 공직자가 함께 하거나 부서, 읍면별로 분산하여 한마음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가뭄 장기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4천6백만 원의 예산을 금일, 노화, 소안, 보길, 고금, 약산 등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